

# 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최우선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2. 10.  
발 표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발 행 일 2018년 12월 21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김자희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mailto: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 CONTENTS

문제 제기	01
미중관계의 성격과 추세	03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	06
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평가	10
정책적 함의	15



---

## 1. 문제 제기

» 미중관계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핵 협상 과정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context) 요인임.

»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기본적으로 미·북 협상의 내부적 동학에 의해 결정될 것임.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미중관계는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과 협상 결과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미·중 양국의 북핵정책이 미중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히 중국의 정책은 미중관계의 틀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는 경향을 보임.
- 이전과 달리, 강력한 국제제재의 작동 여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중관계는 국제제재의 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중국의 개입 정도도 미·북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이는 대체로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됨.
- 향후, 평화체제의 내용과 비핵화 이후의 세력관계의 재편 역시 미중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임.

» 미중관계와 북핵문제의 연관관계는 복잡함. 하지만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북핵문제 전개 및 협상 과정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필수적임.

---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기본적으로 미·북 협상의 내부적 동학에 의해 결정될 것임. 하지만 미중관계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핵 협상 과정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context) 요인...**

---

---

» 본보고서는 미중관계의 성격과 변화 추세를 평가한 후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을 분석할 것임. 이에 기초해,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임.

---

## 2. 미중관계의 성격과 추세

» 미국과 중국은 최근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양국의 장기적인 세력 경쟁은 불가피해 보임.

- 미·중 세력경쟁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임.
- 중국은 점차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군사력 투사능력을 강화하면서 야심을 드러내고 있음. 중국은 장기적으로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 등장의 방지를 핵심적 전략 목표로 추구하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패권 추구를 견제함.

---

미국과 중국은 최근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양국의 장기적인 세력경쟁은 불가피해 보이며 미중 세력경쟁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

---

» 미·중 경쟁의 증대 양상은 2010년 경부터 지속되는 추세임.

- 중국의 지위 상승과 지도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시진핑 정부는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해 옴.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질서 재편을 추진하고,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반접근/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에 기초한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증대시켜 옴.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을 이동시킴.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경제적 견제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견제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있음.

» 미·중 경쟁의 증대는 세력균형의 변화와 연계된 불가역적인 추세로 판단됨.

-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다양한 외교적 노력은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경쟁 증대의 양상을 제어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임.
-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서로의 미래 의도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 사실상, 양국 지도부는 서로를 미래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종의 콘도미니엄(condominium) 형성을 위한 전략적 담합은 사실상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 중심 동맹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미국은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의 유지를 선호할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의 무역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기존의 대중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지도부는 중국을 포용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대중정책에 대한 강한 합의를 유지해 옴. 미국의 복합적인 대중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포용을 통해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력의 도구들을 활용해 경쟁해야 한다는 보다 분명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한 무역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국방비 기본예산을 20퍼센트 가량 증액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증대되는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미 유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시진핑 정부는 증대되는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미 유화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의 이슈들과 함께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의 이슈들과 함께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음.

- 중국의 대미 유화정책은 현 단계에서 강한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중국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영토문제와 주변국 외교 등에 있어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갈등을 증대시켜 왔음.
- 최근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가 기존의 정책 기초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음.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 일정한 대미 유화정책을 추진할 것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영토문제에 대응하고, 역내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임.

➤ 점증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은 여전히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 상당 기간 협력의 기초를 유지할 것임.

-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여전히 안정적인 대외환경이 필요함.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
-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추진해 중국을 본격적인 군비증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임.

### 3. 미국과 중국의 북핵정책

#### 가. 미국의 북핵정책

4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북핵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국제제재를 강화해 왔으며...

» 4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국제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함.

»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3월 북핵정책 검토를 마치고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채택함.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타협을 목표로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임.
-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군사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북한 지도부의 전통적 가정들을 깨는 것을 관건으로 여김.
- 미국은 무역 보복과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을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해 상당히 강력한 경제제재 체제를 발전시켰음.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도, 대북 협상력과 협상 실패에 대비한 정책 대안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확전을 경고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압해 옴.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북한의 의무 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비핵화 과정을 선호함.

-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검증 체계를 채택하려 시도할 것임.

---

● 한편, 비핵화의 보상에 대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을 통한 안보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고려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이후에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제공하길 선호하겠지만, 북한의 현실적인 우려를 고려하면 일종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지도부는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가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이고 미국이 협상력의 강력한 우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북한이 초기에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및 무기를 신고하고 대륙 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전격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작년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검토하고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현재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대안으로 유지하고 있음.

● 협상이 조기 붕괴되는 경우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

● 하지만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지닌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음. 군부 내에는 상기의 위험뿐 아니라 지상군 투입 없이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존재함.

» 미국은 미·북 양자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 왔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후 과정을 통해 종전 선언 등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개입을 축소시키려 시도해 옴.

● 미국은 미중관계 악화 및 무역 압력 강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제어해 옴.

---

미국은 미·북 양자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 왔으며 미중관계 악화 및 무역 압력 강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제어...

---

## 나. 중국의 북핵정책

중국은 가장 큰 위협인 미국에 대한  
사활적 완충국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안정성 유지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전략적으로 우선시...

» 중국은 주로 미중관계의 시각에서 북핵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중국은 가장 큰 위협인 미국에 대한 사활적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안정성 유지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전략적으로 우선시함.

●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원유 수출 중단 등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는 수준의 대북 제재 실행은 거부해 옴.

●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옴.

● 중국 지도부는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핵확산과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이 여전히 관리 가능하고 북한 체제 붕괴의 위험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및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최근 세 차례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외교적 지지를 강화해 옴.

● 이와 함께, 중국은 쌍궤병행론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연계 전략을 추진해 옴.

» 미국에 대한 힘의 열세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해진 미국의 압력 하에 대북 제재 강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음.

● 국경 밀무역과 해상 환적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제재가 약화됨.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체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협력을 다시 약속함.

» 중국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가짐.
- 만약 현재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중국은 군사적 충돌 위험과 함께 한미동맹 및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종전선언 참여를 추진했음. 하지만 미국의 강한 견제와 무역 분쟁의 격화로 인해 중국은 최근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향후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에 대한 힘의 열세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해진 미국의 압력 하에 대북 제재 강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

## 4. 미중관계의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 평가

### 가. 미·중의 북핵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미국은 긴급한 안보 위협이 된 북핵문제의 해결 자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정책과 북핵정책을 대체로 분리해서 추진...

» 미국은 긴급한 안보 위협이 된 북핵문제의 해결 자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정책과 북핵정책을 대체로 분리해서 추진함.

● 미국은 중대한 안보 사안인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대중국 정책의 필요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시키려 하지 않음.

● 대중 무역 압력과 대북 제재의 동시 추진

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레버리지를 갖고 있음.

» 미국은 국제제재 체제 형성과정과 비핵화 이후 미·북 관계 정립 등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함.

●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세력관계 재편을 부차적으로 고려할 것임.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갖는 미중관계의 시각에서 북핵정책을 추진...

»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중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갖는 미중관계의 시각에서 북핵정책을 추진함.

●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보다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할 완충지대의 유지와 전쟁 방지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함.

- 중국은 주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북 제재에 동의함.
- 향후, 중국은 북핵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비핵화 이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북 관계정상화로 인한 대북 영향력 약화를 최소화하려 할 것임.

## 나. 미국의 대중 우위와 대북 제재 강화

» 중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력관계의 우위와 무역 압력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 제재 협력을 이끌어 냄.

»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 수출의 대부분과 석유 제품 수입의 약 30퍼센트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통과를 주도함.

- 경제 제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해 북한 전체 수출을 약 70-80퍼센트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함.
-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다시 지난해 동기 대비 88.7퍼센트가 감소했음.
- 북한은 경공업 제품의 수입대체를 통해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일정한 내구력을 보여줌. 하지만 수출의 대규모 감소는 일정한 시장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생산력을 가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임.

» 무역 분쟁에서 현격한 열세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분쟁의 악화와 북핵문제로의 전선 확대를 피하려 함. 미국의 압력 하에, 중국은 대체로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무역 분쟁에서 현격한 열세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분쟁의 악화와 북핵문제로의 전선 확대를 피하려 함. 미국의 압력 하에, 중국은 대체로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

● 무역 분쟁은 중국의 실질적 양보를 통해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대중 레버리지가 일정 정도 약화될 수 있음. 이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제한적으로 이완될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주요 대북 국제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 미·중 경쟁과 북핵 협상 과정

---

미국은 세력관계 상의 우위를 기초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압박에 중점을 둔 강경책을 주도하면서 평화협정 협상에 중국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

---

≫ 미국은 세력관계 상의 우위를 기초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함.

● 미국은 미·북 양자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 왔고, 완충지대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해 옴.

●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은 외교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조기 개입 시도를 저지함.

≫ 미국은 압박에 중점을 둔 강경책을 주도 하면서 평화협정 협상 등에 중국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조기 개입이 북한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협상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평화협정 협상을 가급적 늦추려할 것으로 보임.



---

## 라. 미·중 경쟁과 평화협정

» 미국과의 세력경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비핵화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도할 것임.

- 특히,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음.

---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으며...

---

» 북한의 협상력과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미군 감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과정은 미·중 경쟁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성을 동반함.

## 마. 미·북 관계정상화 후 남·북·미·중 관계

»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능한 한 중국으로 부터 분리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로 인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할 것임.

» 그러나 미·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증대시키겠지만 북한의 미국 경사 또는 등거리 외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 관계정상화가 긴장완화를 가져오겠지만, 분단 상황 하에서 미국은 군사충돌 시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할 것임.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강한 동기를 가질 것임. 미국에 대항해 북한과 안보 이익을 공유한 중국은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임.
  -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계기로 변화된 환경이 한미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 5. 정책적 함의

### 가. 강력한 대북 압박 유지

» 대북 제재 완화의 시점과 속도에 대한 미·중의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강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미는 초기 단계에서도 제한된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본격적인 제재 완화는 비핵화 과정의 후반부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Forward-loaded 된 북·미 관계정상화와 대규모 경제협력 비전 등 강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임.<sup>1)</sup>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지를 꺾고 핵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특히,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일정한 핵능력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장 큰 난제가 될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의 유지가 필수적임.

---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일정한 핵능력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장 큰 난제가 될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

1) 저자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상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Duk-min Yun and Wooseon Choi, "Breaking the North Korean Deadlock: A Global Action Pl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7, No. 3 (Fall, 2014); 최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국립외교원, 2017년 12월).

---

## 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작은 패키지 딜

» 현재 북핵 협상은 초기 협상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미국은 핵·미사일 조기 신고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상당 부분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
- 반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하면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핵 협상 결과는 주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 동학에 의해 결정될 것임.

- 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임.

---

한국은 미·북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들을 중심으로 상응하는 조치들을 묶은 구체적인 패키지 안을 만들어 적극적인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부분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신고 시점을 약속해야 함. 이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제재 해제 및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 한국은 미·북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들을 중심으로 상응하는 조치들을 묶은 구체적인 패키지 안을 만들어 적극적인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부분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신고 시점을 약속해야 함. 이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제재 해제 및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다. 평화협정 협상 시점

» 중국의 조기 개입은 북핵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실상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이 주한미군 지위 및 유엔사 문제 등을 제기할 경우, 비핵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 대한 논란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음.

» 종전선언 이후에,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협의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전선언 이후에,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협의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 라. 주한미군 대규모 조정의 위험

» 평화체제 구축과 전시작전권 전환이 맞물리면서 비핵화 과정은 한미동맹의 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 비핵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경우, 북한·중국의 압박이 한국 및 미국 내 논쟁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 조정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임.
-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위험도 존재함.

≫ 주한미군 구조의 대규모 조정, 특히 지상군의 대규모 철수는 대북 억제력과 전투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임.

- 미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은 전시에 전쟁의 조기 종결을 어렵게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대량 피해를 의미할 것임.
- 이동군인 해·공군 위주로 재편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임.
- 한미동맹의 약화는 대북 억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할 것임.

비핵화 과정과 한미동맹 이슈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동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 비핵화 과정과 한미동맹 이슈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동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억제력과 전투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불합리한 정치적 압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핵 합의 이후의 한반도는 깊은 데탕트를 형성할 수 있지만, 분단의 조건 속에서 남북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한편,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동맹을 유지한 채 세력경쟁을 계속할 것....

## 마. 핵 합의 후의 현실적인 비전 준비

≫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억제력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핵 합의 이후의 한반도는 깊은 데탕트를 형성할 수 있지만, 분단의 조건 속에서 남북이

---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한편,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동맹을 유지한 채 세력경쟁을 계속할 것임.

» 한국은 핵 합의 후의 남북한 및 주변 정세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을 갖고 대비해야 함.

- 새로운 긴장완화를 활용한 국제협력에 대한 구상과 함께, 여전히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